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

전북교육청, 오늘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내실화 컨설팅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컨설팅’을 24일 순창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도교육청 및 14개 시군 지역교육청 기초학력담당 장학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전북에 맞는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또 이날 컨설팅에서는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사례발표도 이뤄진다. 순창교육지원청은 학부모 학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학습지원단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으로 자원봉사 인력풀을 구

성한 후 학교의 희망을 받아 가장 적합한 인력을 매칭해주는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이다. 올 9월 현재 13명의 학습지원단이 1:1매칭을 통해 기초학력 더딤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내년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업무담당 장학사들이 한자리에 모

여 지역별 운영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공교육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두리교사제를 비롯해 맞춤형학습지원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교, 전주교과 예비교원 기초학력 원학급, 전주교과 예비교원 기초학력 원학급, 전주교과 예비교원 기초학력 원학급, 전주교과 예비교원 기초학력 원학급 등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교육지원청, 보드게임 연수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9월 8일, 15일, 22일 3회에 걸쳐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권역(원주, 진안, 무주)특수교사, 센터 순회교사 56명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즐거운 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특수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용 보드게임의 이해와 활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수업 속 보드게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연수에 참여한 특수교사에게 현장에서 연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수학습용 보드게임을 배부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친숙한 그림 속에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보드게임과 집중력과 관찰력을 요구하는 블록 보드게임 기억력과 순발력을 발휘하는 보드게임 등 교수학습과 연관 지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보드게임들이 소개됐다.

특히 어휘력 향상과 블록 보드게임에서 특수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때 교사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특히 연수 운영은 보드게임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안전을 위해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측정, 최근동선 및 감염자 접촉 확인 등) 및 방역(연수 전, 후 내부 소독,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구비 등)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수경 교육장은 “보드게임을 통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더 나아가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 즐거운 교실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원 역량 강화 및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연수 및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9월 8일, 15일, 22일 3회에 걸쳐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권역(원주, 진안, 무주)특수교사, 센터 순회교사 56명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연수를 실시했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한다

전북교육청, ‘우리의 다락(多樂)방 이야기’ 책자 발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24일 공·사립유치원 교원의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Q&A 형식의 소책자 ‘우리의 다락방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다락방 이야기’는 ‘다락(多樂)방’에서 ‘우리 자주 놀자(우리는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자라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는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한 자료다.

이번 책자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직면하는 현장 교원의 궁금증과 고민,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진 자료다. 이 작업에 교사와 전문직 등 총 8명이 개발위원으로 참여했다.

‘우리의 다락방 이야기’는 ▲교육과정 운영 시 고민되는 점 ▲놀이 지원자로서 교사의 역할 ▲놀이의 허용 범위, 안전에 대한 고민 ▲유아 평가 등의 질문 목록으로 구성했으며 개정 누리

과정 총론,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를 참고해 답변을 작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된 자료는 공·사립유치원의 전임, 겸임 원장(감), 교사, 방과후 전담인력, 행정실장 모두에 배포해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장학금 모금 운동 캠페인 110여명 참여, 1억1300만원 조성

전주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힘내라! 수퍼스타’ 장학금 모금 캠페인에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힘내라! 수퍼스타’ 캠페인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응원 메시지’와 ‘일정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금 모금 운동이다.

9월 4일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23일 현재까지 110여명의 기부자가 동참, 1억1300만원의 장학금이 모였다. 교직원부터 동문, 기업 그리고 재학생까지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 모금에 뜻을 모았다. 조리식품산업학과(대학원), 금융보험학과와 입학지원실, 입학사정팀, 학생지원실, 대외협력홍보실, 대학원 교직원, 물류무역학과 동문, 한식조리학과 및 미래융합대학 학생들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하남(주), (유)대한관

광여행사 등 외부 기관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특히 재할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중등특수교육과 가정교육과 환경생명고학과, 회계세무학과에서는 전공 교수 전체가 기부 참여하며 학과 전 재학생들에게 3~5만원 상당의 제자사랑 장학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부자들은 ‘미래를 향하여’, ‘꿈을 향해 전진하자’,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함께 함께! 수퍼스타’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기부 소식을 전해들은 재학생들은 열마를 내쫓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내어주신데에 너무 감사하다. ‘교수님들의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멋진 분들!’이라며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 캠페인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0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2021 주민참여 제안사업 선정

3개 분야 41개 사업 확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거친 58개 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진행, 3개 분야 4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온라인투표에는 학생 9,677명, 학부모 9,668명, 교직원 및 주민 1만850명 등

총 3만1,033명이 참여했다.

학생분야에서는 익산 용산초 ‘그림으로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부모분야에서는 고창북중 ‘셋길(명상길·사색길·치유길) 체험 프로젝트’ 등 12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및 주민분야에서는 고창 성성초 ‘최종우돌 바이러스의 탐구생활’ 등 23개 사업이 선정됐다.

한편 최종 선정된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당 1,5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지원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한민구 한림원장 초청 특강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3일 비전대 대강당에서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한민구 원장님께 4차산업혁명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기계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등 재학생 130여명이 청취했다.

한민구 원장은 ‘1964년의 서울’과, ‘2020년의 서울’을 비교하고 미국, 프랑스, 독일의 ‘과학기술의 개방’으로 세계 발전을 이끄는 선진국이 됐다

는 것을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이슈를 흥미롭게 전달하고, AI(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는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Original, Speedy, Interactive’의 태도와 능동적인 행동을 제시했다.

특히 취업률 목전에 둔 학생들에게는 직장에서의 성공하는 자세로 배우는 자세, 듣고 말하기,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대인 관계와 팀워크 성찰, 자존감과 동기부여 제고, 조직효과 및 리더십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실용중심 창의·융합 인재양성대학

2021학년도 호원대학교 수시모집

입학상담 및 문의 : 1588-9779

2020년 9월 23일(수) ~ 9월 28일(월)



호원대학교
HOWON UNIVERSITY